목회 환경은 목회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최종원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을 나와 한일장신대 문학 석사, 미국 미드웨스트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았다. 광주 동명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한 뒤 1990년 광주 반석교회를 개척해서 현재까지 담임하고 있다.

목회하기 좋은 환경은 어떤 것인가? 고학력자들이 모여 사는 강남?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강남이건 농어촌이건 간에, 어떤 목회 현장이든지 그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지역이나 환경에 의해 우리의 목회가 좌우된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은 열매를 거둬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지만 누가 목회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걸어가는 행보가 다르고 열매도 다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목회 환경은 어느 지역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철학을 가진 목회자가 그 교회를 이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호 현장 이야기가 소개하는 광주반석교회(담임: 최종원 목사)도 그런 경우다. 최 목사가 광주반석교회를 개척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이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즉, 주민들은 인근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20~30대 젊은 부부,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없는 노인 등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게다가 공단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역 주민의 전출입이 잦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흔히 전출입이 잦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교회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교인들이 교회에 적응해서 일을 맡길 만하면 이사를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척 17년째인 올해 광주반석교회는 주일 낮 예배 장년 출석 성도가 800여 명에 이르고 주일학교까지 포함하면 1,5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광주반석교회가 광주 시내에서도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교회라는 사실이다. 개척 초기와 비교할 때 광주반석교회의 외적인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최종원 목사는 "우리 교회만큼 목회하기 좋은 곳도 없을 것"이라고 자랑한다.

무엇이 광주반석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목회철학을 가지고 목회에 전념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최종원 목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 보았다.

"우리 교회만큼 목회하기 좋은 곳도 없을 겁니다"

광주반석교회를 소개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최종원 목사는 뜬금없이 "우리 교회처럼 목회하기 좋은 곳도 없을 겁니다"라며 교회 자랑을 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의견 충돌을 빚어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님들이 제 의견에 반대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야겠지요. 오히려 제가 어떤 안건을 내면 장로님들을 비롯한 전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제 목회를 도와주고 지지해 줍니다. 정기당회는 장로님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사역 보고를 하는 시간이고, 제직회 같은 모임은 아예 없습니다."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최 목사의 말은 사뭇 충격적이다. 어떻게 들으면 마치 최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의 주도권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만큼 최 목사는 목회자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인가? 최 목사는 어떻게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최 목사와의 이어지는 대화에서 기자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저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90%가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에게서 복음을 듣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저에게 훈련받고 평신도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지난 17년 동안 제가 한 일이라곤 이들을 훈련시켜 일꾼으로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광주반석교회는 다른 교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가장 큰 차이는 목회자가 어떠한 목회 방침을 제시하든 성도들이 그것을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임목사가 주일예배 시 전 성도들이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성가대를 없애자고 했을 때 담임목사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고, 그는 바로 외부에서 영입한 성가대 지휘자였다는 것이다. 만약 기성교회에서 성가대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성가대가 없어지면 나도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반석교회에서는 외부에서 영입한 성가대 지휘자 단 한 명 외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최 목사는 말한다. 그때부터 광주반석교회는 성가대를 해체하여 찬양대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최 목사는 어떻게 광주반석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었을까?

쉽게 일꾼을 세우려는 유혹을 극복하라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5년이 될 때까지 다른 교회에서 임직자가 들어온 경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문 듣고 찾아왔다' 며 교회를 옮기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는 장로도 몇 명이나 됐고, 안수집사며 권사가 수도 없이 많았지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분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장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 같지만 목회철학이 다른 목사님에게 직분을 받은 분들이 제 목회철학에 동의하고 따라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만약에 제 목회철학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또 교회를 떠날 것이고, 그러면 목회에 큰 지장을 받지요."

다른 교회 출신 임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최종원 목사가 그런 결정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최 목사가 이처럼 다른 교회 출신 임직자를 받아 주지 않은 것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세우는 목회를 하겠다는 목회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최 목사는 오늘의 광주반석교회를 보면서 그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거드름 피우고 자리나 차지하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장로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모두 장로가 된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회도 행정처리를 위해 모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사역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아마 적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안수집사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을 훈련시켜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일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많이, 제대로 된 일꾼을 세우느냐에 따라 교회의 부흥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나오는 절박한 기도이다. 하지만 최 목사의 경우에서 보듯,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기 원한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문제이다. 노력과 수고가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최 목사도 이렇게 말한다.

"사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로 섬겼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으로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쉽겠어요. 힘들이지 않고 좋은 일꾼이 들어온다니까. 하지만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쉽게 쉽게 목회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쉽게 가는 것이 빨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더 불확실하죠. 목회는 확실한 길을 천천히 오래 걸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라

최 목사가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목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대원 시절에 만난 옥한흠 목사와 정삼지 목사 때문이었다. 최 목사는 신대원에서 정삼지 목사의 제자훈련 강의를 수강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목회가 어떤 것인가를 배웠다. 그래서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공부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이름 있는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때 저희는 사람을 세우는 목회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한흠 목사님과 정삼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어떤 때는 몇 주를 그 교회에 계속 참석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런 노력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목회에 커다란 방향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최 목사는 총신 신대원 3학년 때인 1986년에 서울 흑석동에서 '한뜻교회' 라는 이름으로 작은 교회를 먼저 개척했었다. 그러나 한뜻교회를 개척한 지 2개월 만에 최 목사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광주로 내려왔다. 최 목사가 한뜻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랑 제 아내는 둘 다 7남매 중 다섯째인데, 공교롭게도 양쪽 가족들이 흑석동에 모여서 살았어요. 한뜻교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나 목회하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주일 날 설교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런 저의 태도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해봤자 결과는 불 보듯 훤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최 목사가 문제라고 느낀 것은 자신이 한뜻교회를 개척한 동기가 사람을 세우는 목회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한뜻교회에서의 목회를 접고 광주로 내려와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는 기성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특히 담임목사와 당회원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최 목사는 그때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를 허락하신다면 기성 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세우고 싶다' 는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결론은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밖에 없었다. 그제야 신학교 시절에 옥한흠 목사와 정삼지 목사에게서 배운 '사람을 세우는 목회' 가 무엇인지 그림이 그려지기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쉽게 쉽게 목회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쉽게 가는 것이 빨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더 불확실하죠.
목회는 확실한 길을 천천히
오래 걸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 10월에 최종원 목사는 마음에 그리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광주반석교회를 개척했다.

목회에 집중하는 목회자가 되라

솔직히 말하면, 광주반석교회는 개척 2년 만에 성도수가 300명이 넘을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룬 교회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광주반석교회의 성장이 지역적인 영향이라고 말한다. 최종원 목사도 일부 그런 점을 인정한다.

"지역적 특혜를 본 건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때는 이 지역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새로 조성되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매 주마다 몇 가정씩 등록을 했지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약 80~90%가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교회를 옮긴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20~30대 젊은 부부들로, 신앙의 뿌리가 그리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도 그쪽 교회에서는 강하게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집사, 권사로 섬기고 있는 걸 보면,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최 목사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새신자가 너무 많이 몰려와서 전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오는 새신자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시간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새신자들이 들어왔다. 최 목사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은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날마다 새신자 심방과 양육 훈련을 실시하느라 교회를 비울 수 없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광주반석교회에 정착한 이유가 그렇게 목회에 집중하는 최 목사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김진효 안수집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우리 목사님은 목회와 성도 사랑하는 데 미친 분입니다.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은 단 하루도 새벽예배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목회에 전념하셨어요. 심지어 해외에 계신 경우가 아니면 그 어디서든 새벽예배 강단을 지키기 위해 교회로 돌아오셨죠. 그렇게 목회에 집중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목사님과 함께라면 신앙생활 하나는 확실하겠구나!'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김진효 안수집사는 자신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당시 광주반석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대부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적게는 10개 내외에서 많게는 20~30개까지 다녀보고 최종적으로 광주반석교회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등록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사님 보고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진효 안수집사의 증언이다.

솔직히, 광주반석교회처럼 개척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광주반석교회의 상황을 다른 일반 교회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반석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 최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목회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다른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최 목사에 의해 양육되고 훈련받아 지금 광주반석교회를 이끄는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최 목사는 그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목회자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이다.

목회자가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여라

김진효 안수집사의 증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는지 아니면 딴 데 관심이 있는지를 다 안다는 사실이다.

김진효 안수집사 외에도 광주반석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최종원 목사에 대해 "목회밖에 모르는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심지어 "설교와 성도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분"이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었다.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데 목회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김진효 안수집사는 이런 말까지 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진효 안수집사의 말에서 우리는 광주반석교회 성도들이 최종원 목사를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엿볼 수 있다. 담임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담임목사의 의도를 따지기 보다는 믿고 따라와 주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목회자는 행복한 목회를 할 것이다. 최종원 목사가 한없이 부럽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진효 집사의 이어지는 증언에서 우리는 최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최 목사님은 늘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시죠. 예를 들어 선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선교에 힘을 쏟으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선교비를 보내기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 목사님은 본인 사례비를 미루고 선교비부터 보내라고 하십니다. 자신이야 늦게 받아도 되지만 선교지에서는 하루 늦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면서 굳이 선교비를 먼저 보내라고 하시지요. 이렇게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시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목사님은 뒤에서 지시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벽돌을 나르면서 건축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건축에 동참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로, 몸만 있는 사람은 몸으로 건축에 동참합니다. 하다못해 몸이 불편한 사람도 벽돌 하나라도 나르겠다고 할 정도지요."

어떻게 보면 광주반석교회 성도들은 최 목사에게 전적인 순종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런 전적인 순종은 강제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담임목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모습이다.

강곤식 장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저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사람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특히 목사님들에게서도 그런 이중성이 있음을 보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 목회자를 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반석교회에 와서도 사실 그랬어요. 언젠가는 최 목사님도 겉과 다른 속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 목사님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대로 사는 분입니다."

김사희 권사도 같은 생각이다.

최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목회에 집중했다.
왜냐하면 질적 건강이
양적 성장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분입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한 내용 그대로 본인이 행동하시죠.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어디에서든지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세요. 목사님들 중에 구제를 강조하시지만 실제로 본인은 잘 내놓지 않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퍼주지 못해 안달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만큼만 따라 해도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들을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자신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어느 목회자의 사모가 이부자리를 싸들고 강단으로 올라가면서 '강단에 있는 남편과 살고 싶다' 고 했다는 이야기는 목회자의 이중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 목사가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최 목사가 오늘날 광주반석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로부터 이처럼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그가 삶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인들은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지는 않습니다. 담임목사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며 결국 그 곁을 떠나지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제자훈련으로 훈련 목회의 체계를 세우라

이제까지 우리는 최종원 목사가 광주반석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목회할 수 있었던 근거를 찾아보았다. 사람을 세우는 목회에 대한 확고한 의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는 자세, 그리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십 등이 그 요인이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최 목사는 이제까지 온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속에서 자신의 목회 철학대로 목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 봐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최 목사가 어떤 목회에 집중했느냐 하는 점이다. 온 교회가 자신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는 목회자라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도자의 방향성과 분명한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결국 모두 좌초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최 목사의 주장이다.

최 목사는 제자훈련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 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가 나가야 할 바른 방향성을 성도들과 함께 잡아가는 것이 목회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 목사는 CAL세미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최 목사 자신은 CAL세미나를 통해 훈련 목회를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일단 양육과 훈련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됐고요, 훈련의 개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대로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식의 개념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CAL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강의를 듣는 동안 그것이 양육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훈련 목회를 어떻게 체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CAL세미나를 통해 얻었지요."

최 목사는 "제자훈련의 강조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최 목사는 제자훈련이 제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제자와의 관계를 통해 교회가 보여줘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준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붙잡으려면 반드시 제자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최 목사는 말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 목사는 신학교 시절부터 사람을 세우는 목회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고 싶어 광주반석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를 개척한 최 목사는 2년 4학기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도들을 훈련시켰다. 하지만 최 목사는 CAL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비로소 훈련 목회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제자훈련 시스템을 도입한 뒤부터 훈련 체계가 잡혔다고 했다. 최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건강한 목회를 하려면 관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CAL세미나를 통해 훈련 목회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속적으로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최 목사는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들의 삶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일까? 남제자반 1기 수료생인 강곤식 장로는 제자훈련을 통해 일어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긍심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제자훈련은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품질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강 장로는 IMF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퇴사해야 했다. 그리고 함께 퇴사한 동료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하지만 그곳도 그리 안정된 곳이 못 됐다. 결국 얼마 못 가 벤처기업은 문을 닫았고, 강 장로는 순식간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은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품위와 바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인생 낙오자가 된 것처럼 비관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랐습니다."

최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금세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갖게 됐다"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역전시키는 경우를 볼 때 최 목사는 제자훈련을 시작한 보람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한 권사님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거의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권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과 헤어지고 다시 새 출발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남편을 품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울며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그 남편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안수집사가 되어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해 가정이 치유된 케이스가 광주반석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권사는 남편의 외도로 결국 가정이 깨지고 말았다. 최 목사는 그 권사에게 제자훈련을 받을 것을 권면했다. 그런

"건강한 목회를 하려면
관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CAL세미나를 통해
훈련 목회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속적으로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데 때마침 남편이 외도하던 여자와 헤어지고, 직장도 잃은 채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 권사는 최 목사에게 남편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다. 최근에 그 권사는 남편과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 권사는 최 목사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아니었으면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목사님 때문에 사는 거니까 목사님이 책임지라"고 농담을 던진다고 한다.

최 목사는 그런 성도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복음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정까지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요? 제자훈련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면서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최 목사는 제자훈련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저희 교회가 한 때 성전건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제자훈련에 집중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집중해서 제자훈련을 시킨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보여요. 집중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는 데 반해, 제자훈련을 대충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늦더라고요.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도출하는 제자훈련이 되게 하라

그렇다면 도대체 최 목사는 어떻게 제자훈련을 실시하기에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일까? 속된 말로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광주반석교회에서는 훈련받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강곤식 장로는 그 차이를 이렇게 대답했다.

"최 목사님은 제자훈련 시간에 우리에게 항상 삶에 비춰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점검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최 목사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 도전하시죠."

김사희 권사는 또 이렇게 증언한다.

"훈련생들의 모습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시면 무섭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혼내십니다. 아주 강하게 나가세요. 하지만 그냥 감정이나 목사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혼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꼼짝을 못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시지요."

김 권사의 말에 강 장로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삶에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깨닫고 나서야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두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최 목사의 제자훈련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성도들의 잘못된 점을 간과하지 않는 최 목사의 자세이다. 사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강하게 나가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훈련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삶의 변화를 도출하려면 제자훈련 인도자는 훈련생들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말씀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인도자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감정과 개인적인 견해로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권위를 갖지 못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는 인도자 자신이 철저히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종원 목사는 광주반석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최 목사가 아무리 강하게 지적을 해도, 성도들 안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그 지적을 수용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목회 환경은 목회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최종원 목사로부터 광주반석교회가 지난날 걸어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다. 어떻게 보면 광주반석교회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물었다.

최 목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저는 광주반석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 당시 1억 원의 빚을 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개척 초기에는 그걸 갚느라 고생했고요, 지금의 예배당으로 옮겨서 성전건축을 시작했을 때는 교인은 많은데 재정은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의 재정 형편이 다 빤하잖아요. 특별히 건축헌금을 낼 만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일반 재정을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 이곳으로 교회를 옮긴 지 15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성전건축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광주반석교회를 가면 아직도 성전건축이 다 끝나지 않았음을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회를 오르내리는 계단도 아직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 목양실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하지만 그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 있다.

특히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교회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뷔페에는 매일 점심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룬다.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실 나온 지역 주민들이고, 심지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모임 끝나고 식사하러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회의 외형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않았지만 광주반석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충실하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광주반석교회는 2007년 현재 주일 낮 예배 장년 출석 성도만 800여 명에 이르는 중형 교회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광주반석교회의 1년 재정은 서울이나 광주 시내에 있는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는 작은 교회를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선다. 특히 예배당 공간이 없어 고생하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예배당을 지어 주기 시작한 것이 벌써 7개 교회나 된다.

작년에는 페루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건축자재를 모두 공수해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오기도 했다. 자기들이 예배드릴 성전도 채 완공하지 못한 교회가 다른 교회 예배당을 지어 주는 감동적인 일을 하면서도 광주반석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며

제자훈련 인도자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도자 자신이 먼저 철저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이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훈련생 역시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원 목사는 이러한 모범이 있었기에 아무리 강한 지적을 해도
성도들 안에 있는 최 목사의 존경심이 그 지적을 수용하도록 이끈 것이다.

당연히 여긴다. '우리 교회부터 제대로 지어놓고 남을 돕자'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최 목사의 증언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느껴지는지 궁금하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면서 최 목사를 특별한 목회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성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원 목사나 광주반석교회 성도들은 모두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요 성도들이다. 그들이 특별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뭔가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지면의 한계상 인터뷰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 광주반석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최 목사의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최 목사의 약점은 외형에서 느껴지는 선입견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 목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독선적이고 너무 강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광주반석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끼리 부르는 최 목사의 별명이 있다. 바로 '알부남'이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얘기다. 그만큼 최 목사에 대한 선입견과 그의 본 모습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역할은 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 이 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담임목사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동역자들이 곁에 있는데 어느 목회자가 목회를 어렵다고 말하겠는가? "우리 교회처럼 목회하기 좋은 곳도 없다"던 최 목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최종원 목사와 광주반석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 바로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최 목사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요즘 들어 저 혼자 너무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전적으로 저의 목회에 따라와 주는 것은 감사한데, 제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 목사는 앞으로 교회의 각종 사역과 정책 결정의 리더십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좀 더 많이 위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 목사 자신의 리더십이 아닌, 평신도 지도자들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최 목사의 생각이다. 그래서 최 목사는 조만간 안식년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 17년간 목회에 전념하느라 안식년을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을 위임하기 위한 계기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잠시 자신이 교회를 떠나 있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광주반석교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주반석교회에는 이미 최 목사와 같은 목회철학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최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던 성도들이 최 목사가 없다고 하여 다른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광주반석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반증이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목회에 집중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최 목사가 맛보고 있는 열매는 바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목회자 자신이다! 바라기는 이 글을 읽고 앞으로 최종원 목사와 같이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박순종 목사〉

최종원 목사와
광주반석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
바로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